

무위당 장일순의 미학과 사상 1부

무위당 장일순과 평등사상

동학, 조선양명학에서 명대 이탁오까지 거슬러 읽기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무위당 장일순의
미학과 사상 2

무위당 장일순과
생명사상



무위당 장일순(無爲堂 張壹淳, 1928~1994)

중립화 평화통일운동, 대성학교 설립의 교육운동

난초 사군자 인문화, 서화가

신용협동조합운동과 한살림운동 같은 공동체살림의 생명운동

70년대 민주화운동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살림'의 문명을 주장한 생명사상가로서 장일순

가톨릭 신자이면서

불교와 유학 사상 및 노장사상에도 조예가 깊었고,

특히 해월 최시형(崔時亨)의 사상과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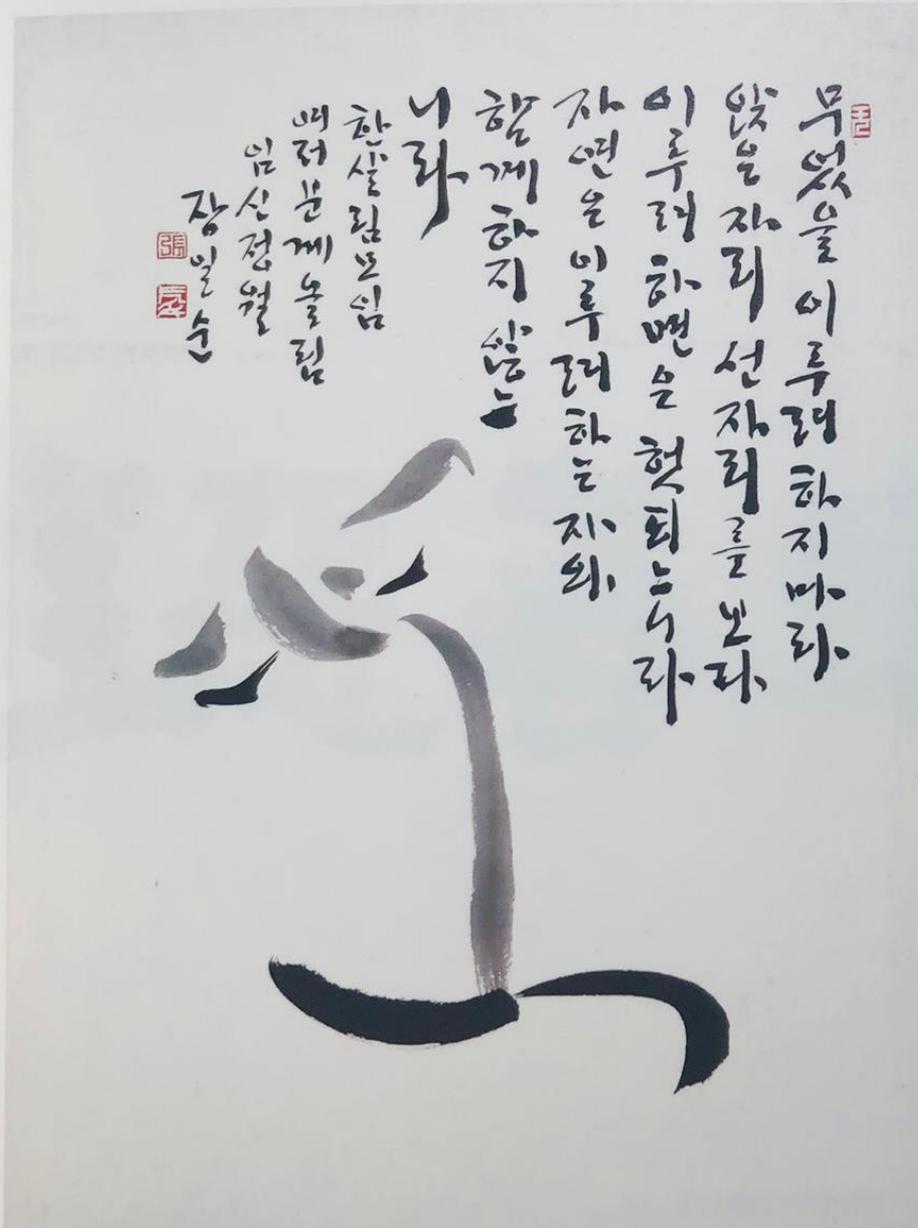
일명 '걷는 동학(東學)'으로 불리기도 한 시대의 스승

신용협동조합운동, 한살림운동, 유기농운동, 공해추방운동을 주도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명사상

무엇을 이루려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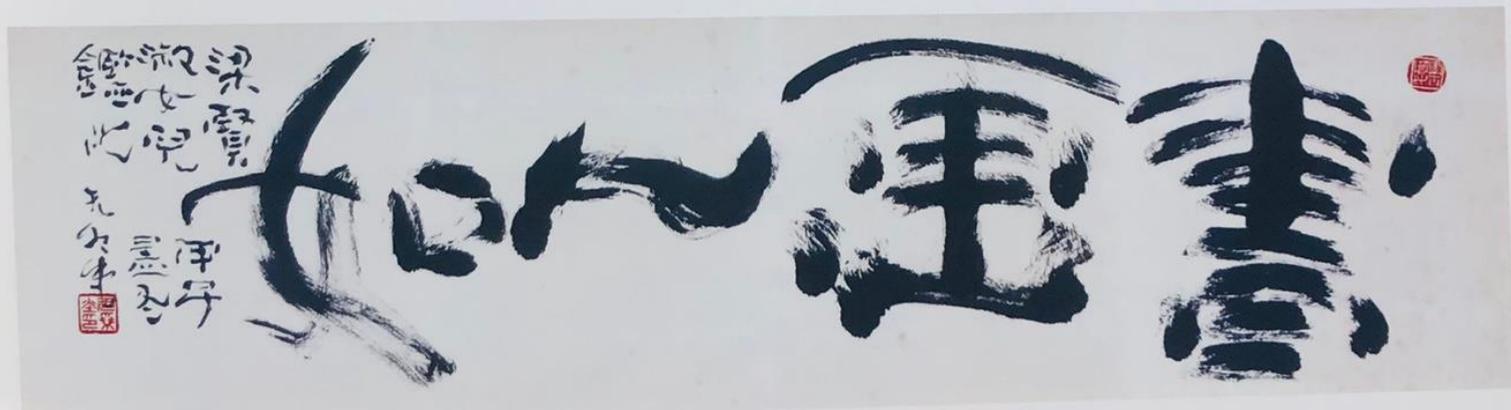


무엇을 이루려 하지마라
앉은 자리 선 자리를 보라 이루려 하면은 헛되느니라
자연은 이루려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느니라

한살림모임 여러분께 올림 임신정월 장일순

書畫一如

1984년



書畫一如 서화일여

梁賢淑女兒 鑑之 甲子畫冬 無爲堂

글씨와 그림은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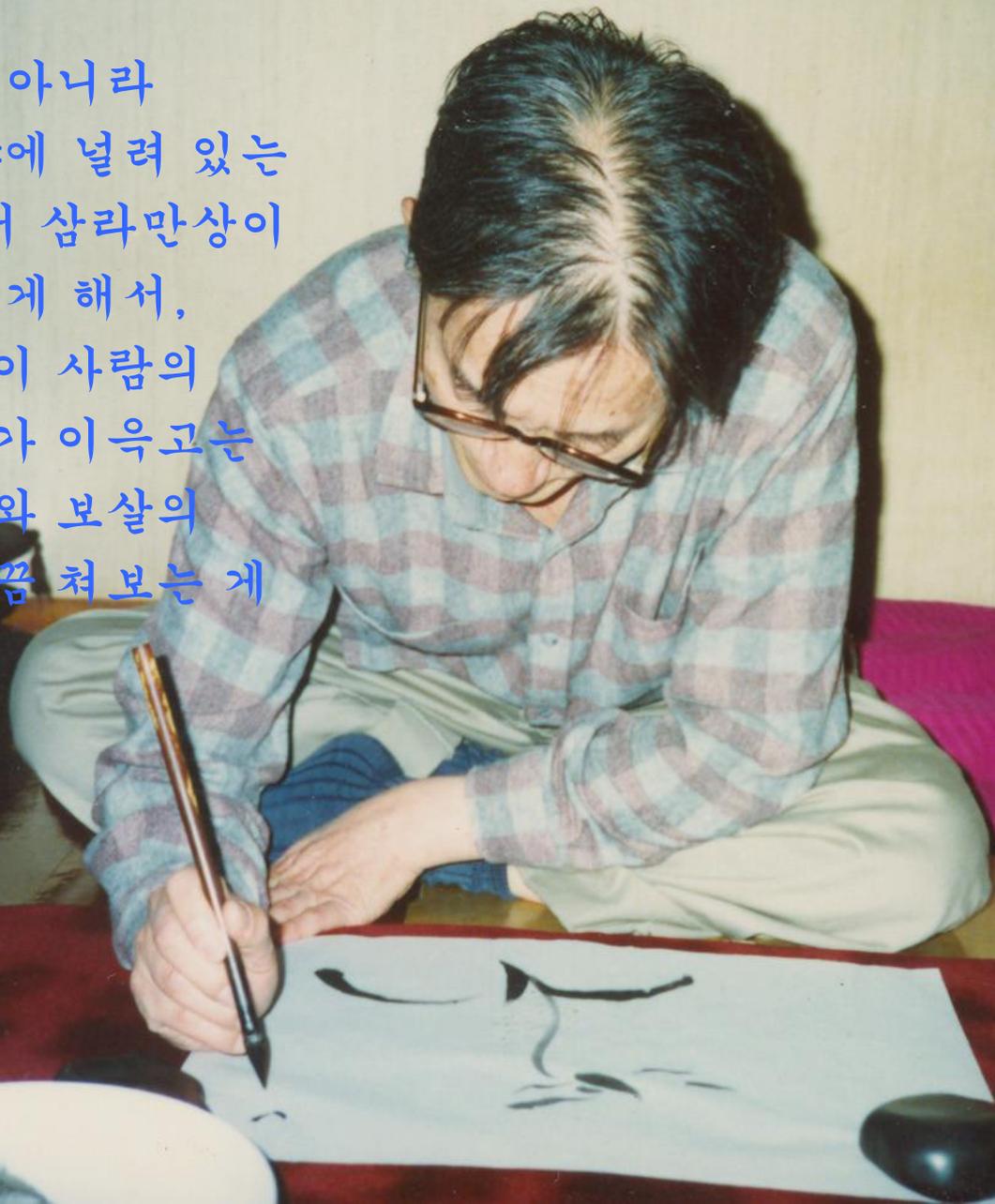
무위당 연보

- 1928년 출생, 어릴 적 우국지사 차강 박기정으로부터 한학과 문인화 사사
- 1945년 경성공전 입학, 미군정 중심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반대운동으로 제적
- 1952년 원주 성육고등공민학교 교사
- 1954년 안창호 선생의 맥을 계승하는 원주 대성학원 설립
- 1956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
- 1960년 사회대중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
- 1961년 중립화 평화통일안으로 구속되어 3년 옥살이
- 1963년 출소 후 정치활동정화법과 사회안전법에 묶여 가택 내 감시됨
- 1965년 한일굴욕외교반대운동에 참여한 대성고 학생들 대신 이사장직 사퇴
- 1968년 농촌과 광산촌 재건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운동 시작
- 1971년 지학순 주교와 함께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주도함
- 1973년 1972년대홍수 이후 지학순 주교 발족 재해대책사업 지도함
-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창립 후, 한살림운동과 생명운동 전개
- 1994년 위암으로 67세 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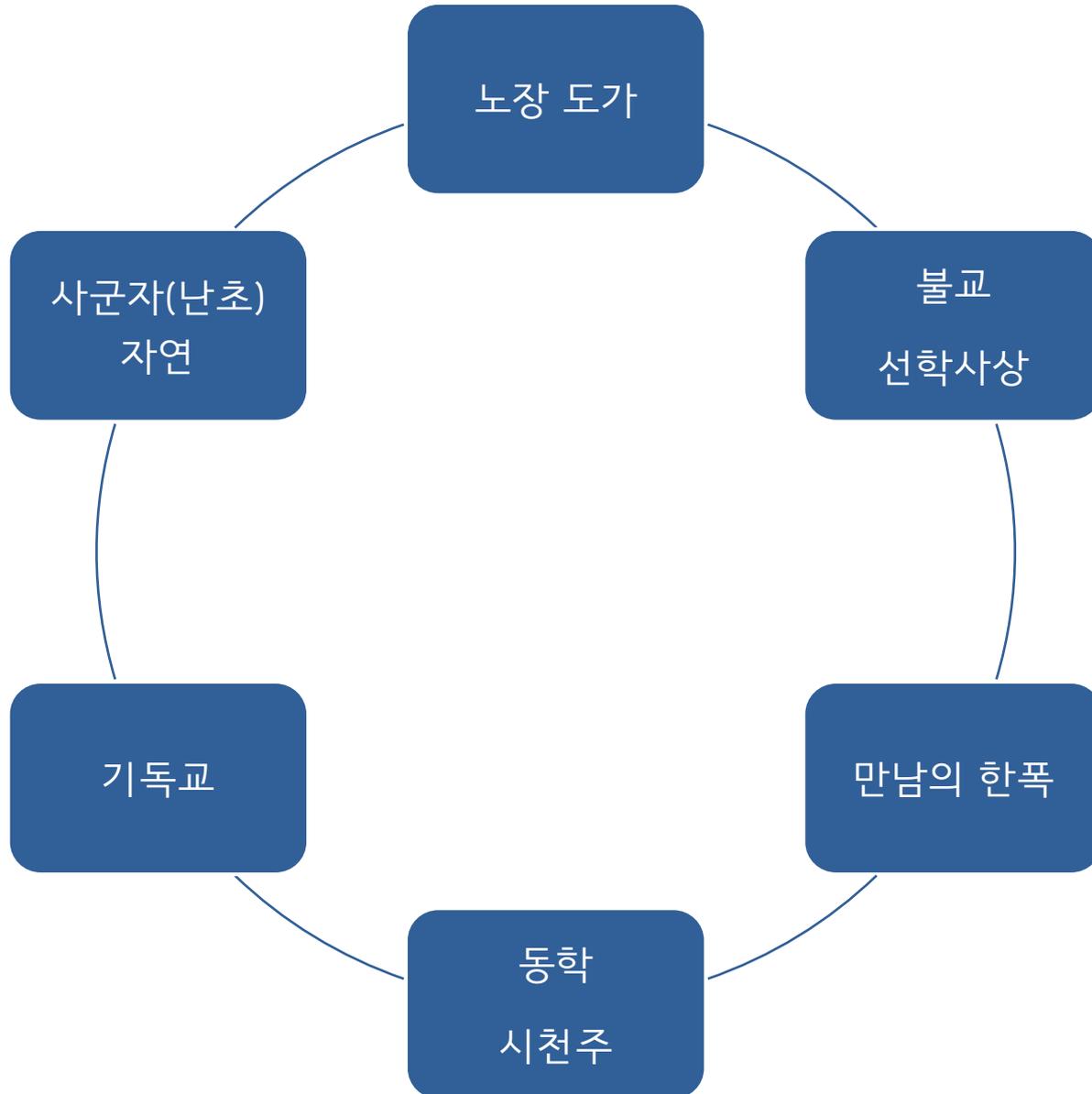
장일순 삼의 운동

- 50년대 정치운동
- 60년대말 신용협동조합운동
- 70년대 농민운동, 재해대책사업의 사회운동
- 80년대 생명운동

난을 치되
반드시 난이 아니라
이 땅의 산야에 널려 있는
잡초에서부터 삼라만상이
다 난으로 되게 해서,
시나브로 난이 사람의
얼굴로 되다가 이윽고는
그리고 부처와 보살의
얼굴로 되게 꼼 쳐보는 게
내 꿈일세.



무위당 문인화의 흐름



무위당 수묵화의 다양성은 사상의 다양성이다.

一切心造
李正康
丁酉年秋
無心堂

東坡詩句
已巳夏夜
無心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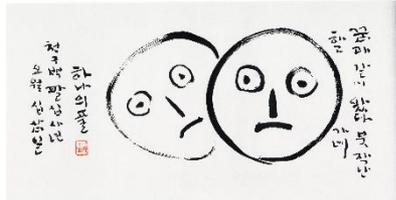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一切心造
李正康
丁酉年秋
無心堂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空超
宗遠
一山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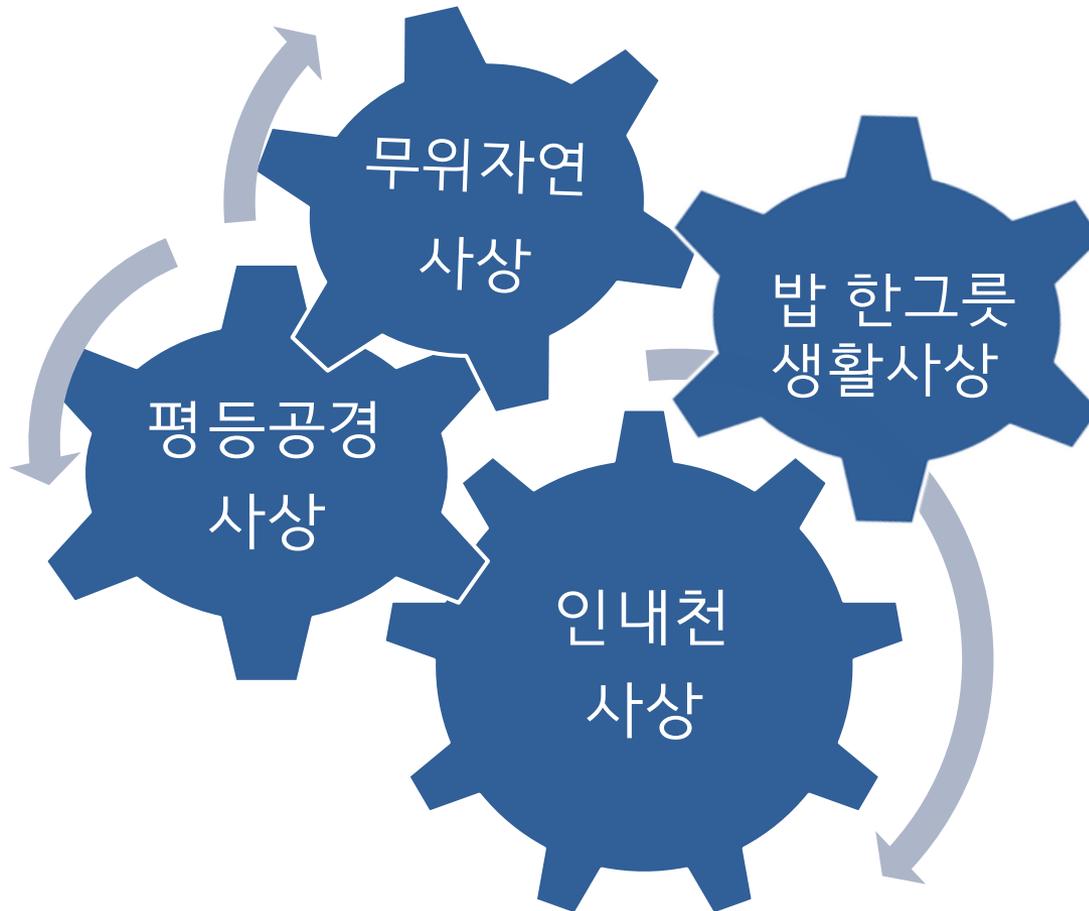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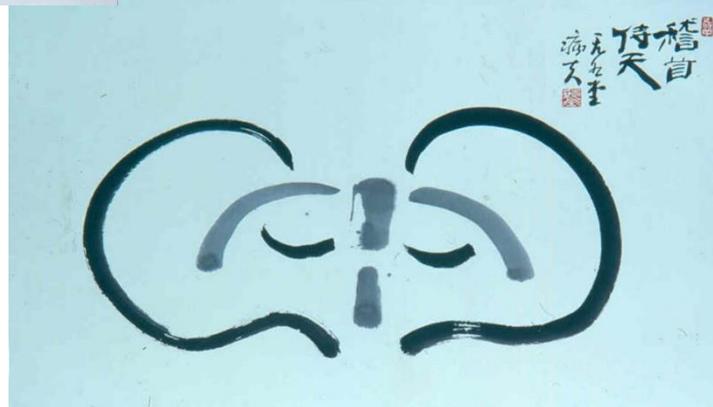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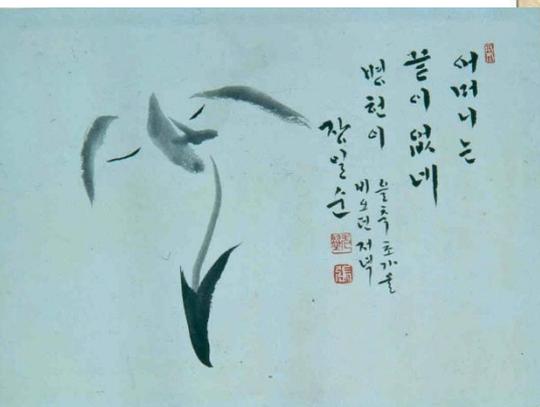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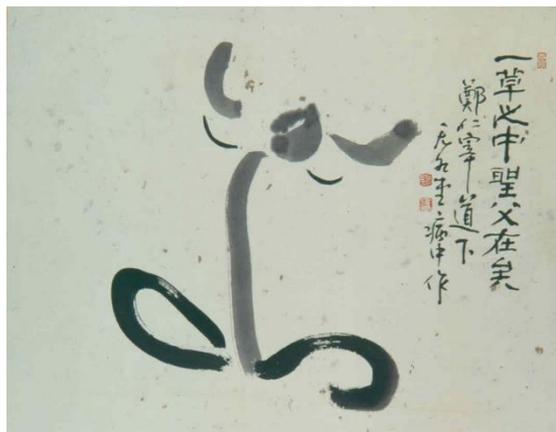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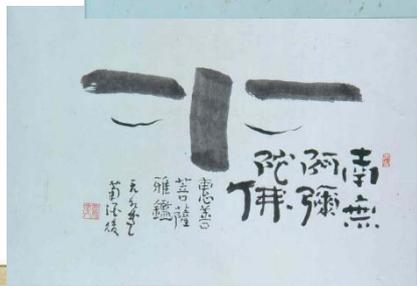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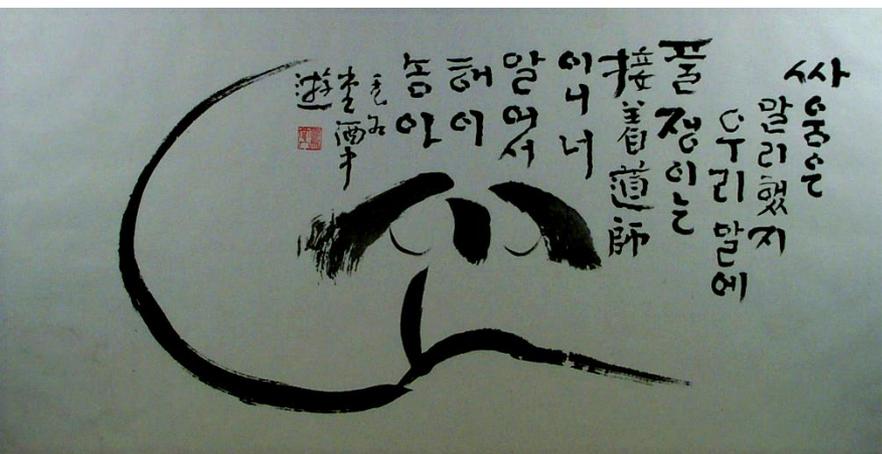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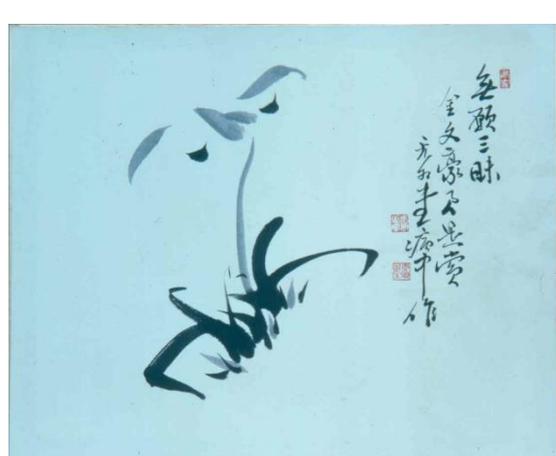
心如水
清如月
空如雲
淡如風



무위당 문인화에 나타난 생명사상

(무위당 서화자료집 1~8권 수록 작품 분석)





장일순의 문인화

무위당 문인화에서 난은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려지면서 난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굴곡과 빠침이 내면화됩니다. 그러면서 난의 자연스러움이 난의 몇 획 안으로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난은 점점 더 부녀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강함이 부드러움 안으로 들어가버립니다. 붓끝은 단순해지지만 붓치는 마음은 섬세해 지는 것입니다.

남을 모시고 섬기면서 남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섬세함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란 고구마 장사이기도 하며 시장통에 나물파는 할머니이기도 하며, 심지어 나를 해코지한 사람일 수 있고, 나아가 저 산위에 소나무와 들녘 잡풀까지, 사람과 자연 모두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과의 일체감은 사람의 얼굴을 갖춘 난으로 승화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이를 보듬어 안고자 했던 무위당의 난입니다. 그래서 무위당의 난은 여성이며 어린이의 마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도조이”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노자 도덕경 55장, 30장)

含德之厚, 比於赤子...
함덕지후 비어적자

덕을 두터이 품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骨弱筋柔而握固...
골약근유이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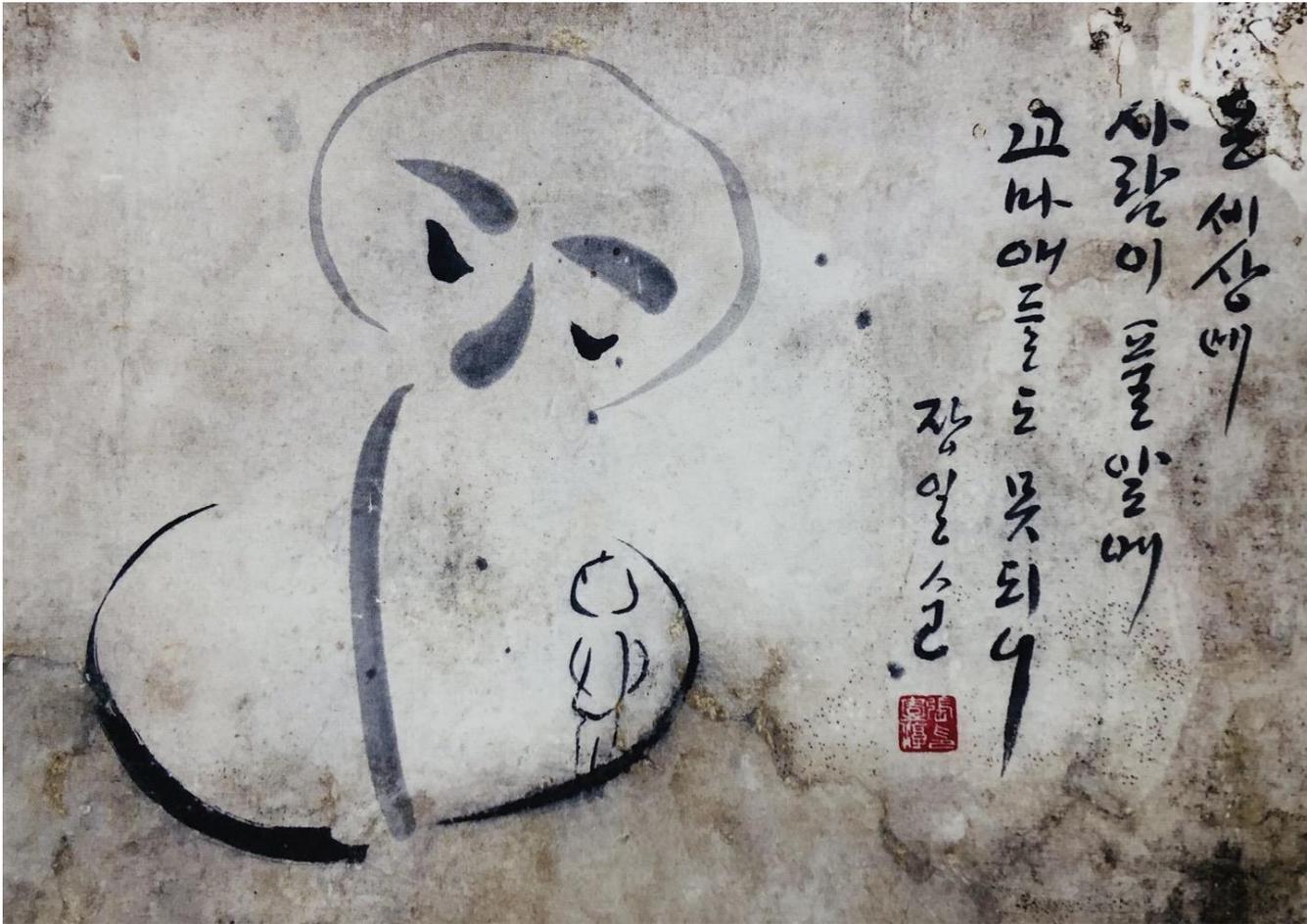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쥐는 힘은 강하다.

知和日常, 知常日明...
지화왈상, 지상왈명.

이러한 조화를 아는 것이 도의 모습이고
이런 도를 아는 것이 밝은 지혜이다.

... 物壯則老. 謂之不道. 不道早已.
물장즉노. 위지부도. 부도조이

자연 사물은 번성해도 곧 쇠퇴하는데,
이런 변화의 만물은 도가 아니며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온세상에
사람이 풀앞에
꼬마애들도 못되니
장일순

아이를 공경하는 모습이 장일순 평등사상의 기초이다.
그 평등철학은 동학의 평등과
이탁오의 평등론에 밀접히 맺어있다.

해월의 평등사상

- 남을 가르치지 않는다
- 훈계하지 않는다.
- 잘난 체 하면 내가 바보다
-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모든 이는 평등하다.
- 하늘은 내 안에 있다. - 인내천 사상
- 책 이상으로 타인의 인생에서 항상 배운다.
-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나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 폭력으로는 상대를 강제도 못하고 추종도 시킬 수 없다.

〈해월 최시형 선생 말씀〉 앞면에 새긴 내용은 대인접물(待人接物) 중에 다음과 같다.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하라. 항상 꽃이 피는 듯이 얼굴을 가지면 가히 사람을 융화하고 덕을 이루는데 들어가리라.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오.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일이 있으면 사리를 가리어 일에 응하고 일이 없으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 공부를 하라.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심술에 가장 해로우니라.

남을 훼방하고 배척하여 삶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군자가 이르기를 불효라 하였으니, 사람의 장단을 말하는 것은 도덕에 크게 해로우니라. 양공은 구부러진 재목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명의는 병든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 하느니라.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면 마음과 한울이 서로 떨어지고, 마음과 한울이 서로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다하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현의 지위에 들어가기 어렵으니라.

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제비의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하고, 초목의 싹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손수 꽃가지를 꺾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오,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날짐승 삼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최시형(崔時亨, [1827년](#) ~ [1898년](#))

[동학](#) 제2대 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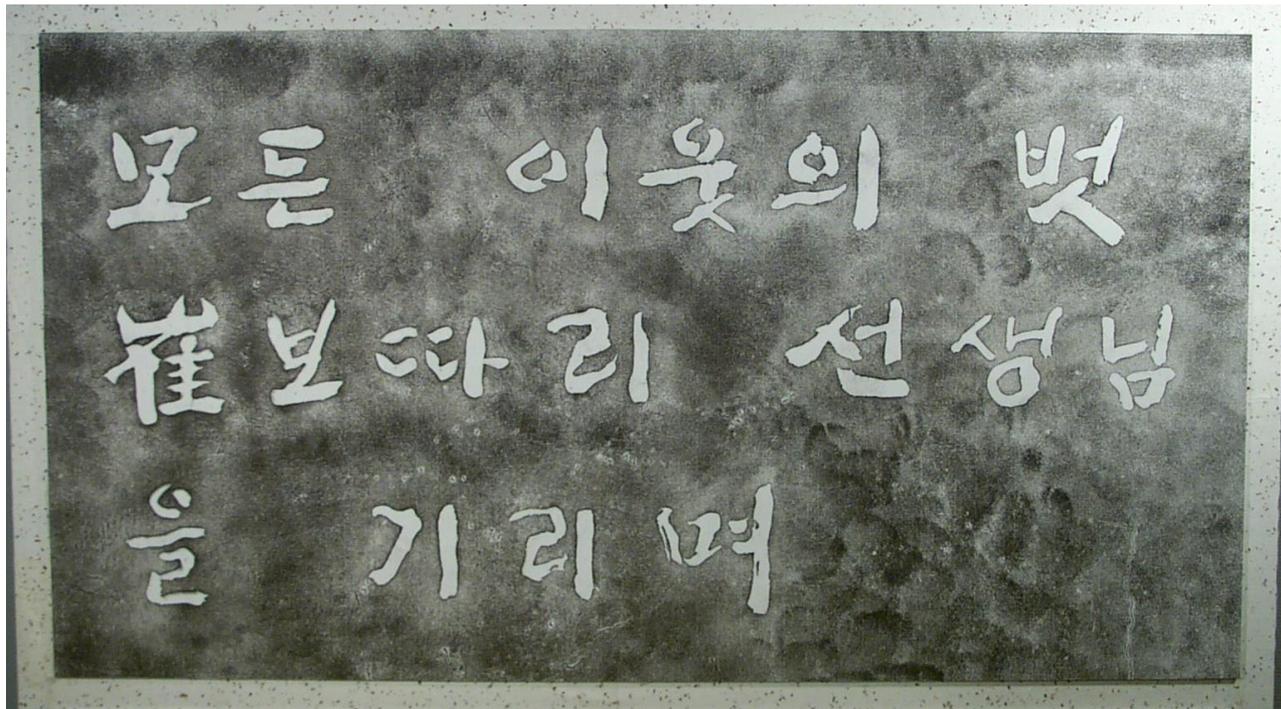
1861년 입도, 1863년 교주

해월(海月)

도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가지이나 단박에 깨치는 길도 있다. 이 길은 원래 자기 안에 도의 자성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누구나 농민이나 선비나 부자이나 가난하나 여자이나 남자나, 아이이건 어른이건 관계없이 자기 안에 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면 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해월 추모비 제막식-1990





22세 이소사 장흥전투(1895)
조연희 화백의 상상도

15세 김유선, 장흥군 대덕면 연지리

15세 박백환(朴白煥), 완도군 약산
면 해동리(당시 장흥군)

16세 윤성도, 1984년 회령진성 무
혈입성부터 장흥 강진전투

소년 지휘관도 있었는데,

13세 최동린 1894년 12월 장흥군
남문밖 석대 혈전

(당시 일본신문 기사내용: “어린동
학. 동도(東徒) 중에는 동자(童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崔라고 했
다. 동학 신도들은 그를 칭하여 선
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최
동자(崔童子)라 하여 그 순진무구
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롱하였
다. 동학도의 인민을 선동하는 것
은 매번 이와 같다.”)

방정환(1899-1931)

- 동학에 가입 1916
- 어린이 라는 말 처음 사용
- 색동회 -어린이날의 전신
- 유학시절 1920-23년 김기전(양명학, 동학)과 함께 어린이 운동
- 동학의 인내천 사상 흡수
- 천도교 3대 교주 의암 손병희의 셋째 딸인 손용화 여사와 결혼 1918

일상생활태도로 본 양명학, 동학과 방정환의 어린이 대하기

- 어린이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 훈계하지 않는다.
- 어린이 앞에서 잘난 체 하면 어른이 바보다
-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매번의 행동 전에 되새긴다.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자식)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이도 한울이니 아이를 때지리 마라”
- 어린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동몽접장, 아녀자에게는 부인접장이라고 호칭했다.
-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나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 폭력으로는 상대를 강제도 못하고 추종도 시킬 수 없다.

동학의 평등사상

- “사람이 한울이니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
- 자기 안의 한울님
- 기존의 성리학에서 주체가 군자이거나 군주 이었지만, 이제 백성 한 사람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무계급의 철학을 말한다.
- 최제우(1824-1864) 단박에 깨닫다.
-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 내 안의 시천주侍天主

이지(卓棼, 1527-1602)의 양명학

- 동심설(어린아이의 마음)-거짓을 버리고 생각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동심이 양지이다. 정신능력에서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다.-焚書 -童心說
** 동심: 어린이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며 참된 마음이다. 동심을 잃으면 어른이라도 참된 어른이 아니다.
- (옷입고) 밥먹는 것이 곧 인륜물리이다. 焚書
-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양여원은 그 중 네 가지를 버리고, 다만 몸을 사우성현(師友聖賢) 사이에만 두었다.”라고 하면서 의(義)·친(親)·별(別)·서(序) 등은 상하 관계의 종적인 윤리이므로 버리고, 스승과 벗 사이의 신(信)은 횡적인 윤리이므로 취한 것이라 하였다. - 焚書 「하심은론(何心隱論)」 삼강오륜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 공동체 구성원 관계를 오로지 평등한 신의 관계로 본다. -하심은론

《분서》(焚書)는 1590년 이지(李贄)의 나이 64세 때 호북(湖北) 마성(麻城)에서 처음 간행, 당시 금서로 지목됨.

童心이란

- 진실한 마음, 거짓을 끊어버린 순진의 본심, 聞見이전 처음의 마음이다.
- 美名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 이전, 공부란 많이 책을 읽어어도 동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이다.
- 글쓰기도 동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찬양과 미화된 문장은 동심을 잃기 쉽다.

이탁오의 유불도 통합

“배고픈 이에게 쌀밥이나 기장밥을 따질 여유가 없다. 그냥 허겁지겁 먹을 뿐이다.

마찬가지다.

도를 찾아가기 위해 바빠서 그것이 노자이건 공자이건 가를 겨를이 없다. 허겁지겁 공부를 할 뿐이다.”

무위당을 찾아가는 두 가지 통로

자유와 생명

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마찬가지로 중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이다. 중용에서 자유는 다음 구절에서 드러난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일러 中이라 한다." 즉 아직 발현되지 않은 中은 만물의 오묘함이 간직된 상태이다.

이탁오가 말하는 성인이란

‘마음에서 성인이 되며, 사람마다 모두 성인이다.’라는 이탁오의 말은 사람마다 모두 성인이므로 성인은 사람들에게 따로 보여줄 특별한 도리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밭갈고 벼심고 그릇굽고 고기잡는 사람들에게서 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면, 그밖의 천만 성인과 현인의 선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왕수인(王守仁, 1472-1528)

양명학의 기초

- 심즉리(心卽理) ·
- 치양지(致良知) ·
- 지행합일(知行合一)

왕양명 '치양지'(致良知)

1. 저절로 주어진 밝은 자각의 앎(自然明覺之知)
2. 순수하고 한결같으며 거짓됨이 없는 앎(純一無僞之知)
3. 두루 행하여 중단됨이 없는 앎(流行不息之知)
4. 널리 대응하고 막힘이 없는 앎(泛應不滯之知)
5. 성인과 어리석은 자 사이에 틈이 없는 앎(聖愚無間之知)
6.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치되는 앎(天人合一之知)

또 다른 양명학 황종희(1610-1695)

- 명말(1644) 청초 <명이대방록>, <맹자사설>
- '선한 본성'을 믿는 맹자의 후예
- "인간은 각각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 상정

『명이대방록』原君：“有生之初, 人各自私也, 人各自利也。”“豈古之人有所 異哉? 好逸惡勞, 亦猶夫人之情也。”

- 그러나 남을 돕고 위하는 행동, 수고로워도 측은심의 행동을 하도록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선천적 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백성이 군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황종희는 맑은 것만이 아니라 탁한 것 역시 성이라고 말한다. 다만 “지극히 탁한 가운데에도 한 점 참된 마음은 매몰될 수 없으니,” 그점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이고 인간이 만물가운데 영험한 이유이다.

“사람이 걸주처럼 극악무도하더라도 자기 하는 짓이 악하다는 것을 모른 적이 없다.” 즉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인간은 걸주처럼 극악무도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리는 또한 완전하다.”44) 즉 자신의 악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한 점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 점 마음이 사람만이 갖는 ‘선한 본성’이며, 인간성으로서 갖는 지각의 내용이다. (이혜경 2008, 황종희의 ‘분량(分量)’의 성선설과 권력견제의 필요성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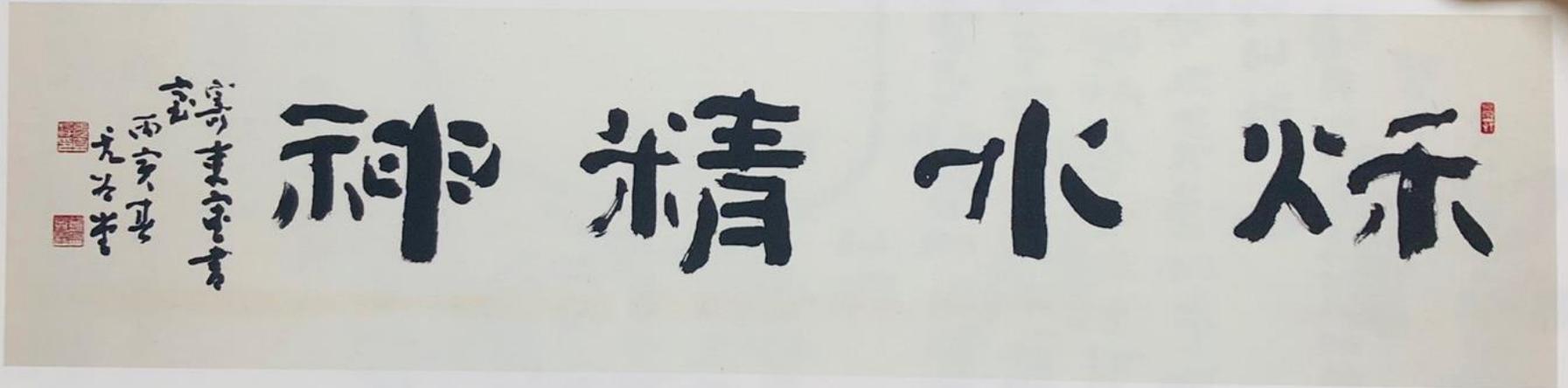
본성을 황종희는 본체라고 하는데, 본체는 감각기능과 생리기능을 누구나 갖고 있듯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 왕양명이 ‘온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다 滿天下都是聖人’라고 한 것은 우리 본성의 생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본체는 신체에서 작용한다.(이규성 내재의 철학:황종희 34-35쪽)



차강 선생의 노근란

秋水精神

1986년



秋水精神 추수정신

寄 東宙書室 丙寅春 無爲堂

가을 물처럼 맑은 정신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강의했습니다>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 『길 위의 우리 철학』
- 이규성 2012, 『한국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호근 2018, 『한국철학사,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메멘토
- 구태환 2022, “장일순 사상에 나타난 타자와의 관계맺기”. 통일인문학 89집
- 박은식(이종란 옮김) 2010, 『왕양명실기』. 한길사
- 박맹수 1986, “해월 최시형의 초기 행적과 사상”. 청계사학 3권(1986): 97-162
- 박맹수 2014, “동학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 한국종교37집: 53-87
- 이주행 2005, 『무위 유학, 왕기의 양명학』. 소나무
- 오문환 편 2005,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 신용철 2017,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탐구당
- 이탁오(김혜경옮김) 2004, 『분서』 I, II. 한길사
- 엔리에산, 주지엔구오(홍승직 옮김) 2019, 『이탁오평전』. 돌베개
- 최종덕 2016, “현대한국생명사상의 확립: 함석헌과 장일순” 『비판적 생명철학』. 당대
- 이현주 1993,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 녹색평론사 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2004,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 김삼웅 2019, 『장일순 평전』 두레출판사
- (사)무위당사람들, 『무위당 서화자료집』 1~8권
- 1988년, 1998년 무위당 서화전시회 작품도록

1부, 감사합니다.

강의시간 제약으로 이야기 못하고 넘어간 ppt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강의록 파일 아래 주소에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덕의 홈페이지 https://philonatu.com](https://philonatu.com)